

계간

현대시사상

POETRY & THOUGHT

라깡·푸코·데리다

여름 1990년

- 시 이유경·박의상·하재봉·원재길
조원규·김창겸·이만근
- 해외시 가르시아 로르카
번역 및 해설·김춘진
- 기획 라깡·푸코·데리다
김형호·라깡의 반인간주의
김인환·라깡의 언어와 무의식
E.T. 배넷·푸코의 반인간주의
윤호병·데리다의 반인간주의
이동하·198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한 양상
서성록·한국 회화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논문 감태준론
김재홍·소외 또는 인간회복의 꿈
- 서평 최동호·박상천

現代詩 思想

인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실천의 세계는 인간이 아니라 언어적 체계에 의해 지탱되며 인간은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의 자리로 간주된다. 인간이 사회·역사적 주체라고 믿는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수용되는 이 시대의 지적 풍토에서 시도하는 인간 개념 비판론 「반인간주의」, 구조주의자들로 알려진 라캉·푸코·데리다의 사상으로 읽어본다.

행진곡 외 4편

김창겸

연필이 행진한다
白紙에서 破紙까지
五千의 決死隊를 이끌고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혹은 아주 난해한 문장으로
당신의 밋밋한 대뇌에 페퍼보그를 쓰며
M16을 난사하며
당신의 돌도 없는 血肉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기 위해
탁자 위의 달걀 속으로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休戰線 철조망을 끊으며
보드카를 마시며
카드섹션을 벌이며
만국기를 필력이며
칼 루이스보다 더 빨리
彗星보다 광폭스럽게
국회 속기록에 낙서를 하며
TV 화면에 커튼을 드리우며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며

위조지폐를 찍어내며
라스콜리니코프와 어깨를 맞대고
갠지스강에서 니카라과까지
아크로폴리스에서 망월동까지
공수특전단을 앞세워
주사위를 던지며
리듬체조를 하며
당신의 레인코트 속으로
당신의 머리칼 속으로
끊임없이 안부를 물으며
끊임없이 용암을 분출하며
오르기즘을 느낄 때까지
피임에 상관없이
연필이 행진한다
氷山처럼 행진한다

絶對感覺

바람이 분다 바다는
마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는 마른다 조금씩
광대뼈가 석순처럼 솟아오른다
바람이 바다를 마르게 한다
태양마저 숨진 바닷가
진홍의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바다를 갉아먹는다
바다는 고통에 신음한다

파란 피를 흘리며 경련한다
바람의 무게에 못 견디어
바다는 드디어 쿵 하고 쓰러진다
구토하며 쓰러진다
바람이 분다 바다는
마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는 마른다 조금씩
질식해가는 해저의 밑바닥엔
어느새 앙상한 뼈만 남는다
마른 바다의 해저 속에
투명한 뼈만 남는다
바람에 그을린 투명한 뼈만 남는다
보이지 않는 뼈를 뚫고 지나가는
어디선가 들려 오는 하아프 소리!
맑은 하아프 소리……

스탠드빠 입구에서

그대는 서 있다
流動하는 관객들 속에서
비트 있는 네온사인의 불빛 받으며
不動의 자세로
그대는 못박혀 있다
극단의 희극배우처럼
뼈에로처럼
그대는 또 웃는다
표정없이 웃는다

四角의 검은 입방체 위에
기름때 흐르는 街道 위에
까아만 눈썹 人造 코 달린 빨테안경
빨간 면장갑에 신사모자 없어 쓰고
그대는 組立되어 있다
아교처럼 굳어 있다
들끓는 차량들의 굉음 속
아황산 가스의 독기 마시며
그대의 주인을 대신하여
뼈아의 간판이 되어
살아 있는 彫像이 되어
商品처럼 전시되어 있다
채플린보다도 코믹하게
산다는 것의 힘겨움과 슬픔을
온몸으로 광고하면서
오색 전구불이 번쩍이는 갑옷 속에
수백 수천의 눈알들을 스틱으로 내리치며
그대는 서 있다
人形처럼 서 있다

파전

난 자유롭다

자유의 굴레를 벗어난 난
자유롭다 거주지가 서울인 난
유리창을 깨고 도망쳤지만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

난 자유롭다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난 자유롭다

승강구의 문은 자동으로 개폐되고
태양은 눈발처럼 이마 위에 필적이고
계다가 지금은 얼마쯤의 돈도 있으니

난 맘만 먹으면 부산까지라도 갈 수가 있다
난 맘만 먹으면 창녀도 살 수가 있다
난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탈 수도 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도 있다
한쪽 손으로 코를 풀 수도 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술을 마실 수도 있다
술 대신 종이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다

난 자유롭다 급류처럼 자유롭다

난 시계의 태엽을 끊을 수도 있다
지구의 표면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겨울이 오면 롱코트를 입을 수도 있다

난 자유롭다 자유롭다
도대체 자유롭다

집행유예

한번 더 나는 입맞춘다
한번 더 나는 포옹한다

十五月の 태양을 하얀 눈발을
안개 낀 우수와 라일락꽃을
복제된 번뇌의 피뢰침 끝에서

한번 더 나는 피흘린다
한번 더 나는 추락한다

자동보관함에 영구히 기탁해버릴
울고 있는 나의 頭部를 위해
被拉당한 사랑의 교각 위에서

한번 더 나는 방노한다
한번 더 나는 월담한다

王水로 가득찬 天空 속으로
쇠처럼 달아오른 혼의 眩氣를
일시에 放射한다

계간

현대시사상

POETRY & THOUGHT

현대시와 기호학

여름 · 1991



- 시 박의상 · 조정권 · 윤성근 · 장정일 · 이만근 · 김창겸
- 해외시 블라스 데 오페로
번역 및 해설 · 전기순
- 기획 현대시와 기호학
서우석 · 시어의 기호학
윤호병 · 폴랑 바르트의 기호학
유재천 · 로트만의 시의 기호학
하윤금 · 그레마스의 기호학
이어령 · 정지용의 〈말〉의 기호학적 분석
박종철 · 시 해석을 위한 언어기호학적 접근
D. 들라스 / J. 필리올레 · 시적 메시지의
언어적 현실들
- 논문 박목월론
한광구 · 《청록집》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 서평 하재봉
- 자료 김소월 · 시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보편적인 표현전달 방법으로 사용된 기호들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인 기호학. 그러나 기호학이 학문적 체계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 최근의 현상이다. 오늘날 기호학은 모든 학문 연구의 토대로서 우리의 사고와 문화영역이 은폐하고 있는 비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담하게 폭로한다. 움베르토 에코·롤랑 바르트·유리 로트만·A.J.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하는 특집기획은 현대사와 기호학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계의 기호적 특성을 해명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처세술 개론 외 3 편

김창겸

가면을 써라
주어진 얼굴만으론
살아갈 수가 없다
가면을 써라
십 년 전보다도 교활하고
일 년 전보다도 어리숙한
견고하고도 무표정한
가면을 써라
여자들은 더 이상
빌려 탄 승용차 따위엔
흥미가 없다
동료 직원들도 이제 너를
완전 웃음거리로 취급한다
가면을 써라
수십만 신도들을 그러모으고
잘 팔리는 시집을 내고
다이아 반지와 교미를 하고
국회의원 물망에도 오르려면
가면을 써라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범없이도 살 사람같이만 보이는
그저 평범한 사람같이만 보이는
가면을 써라
순진무구한 가면을 써라

눈물을 머금은 태양

불태워 버려라
나의 눈을
나의 심장을
저주받는 네잎 클로버를
태양 주위를 선회하는
아홉 개의 행성들을
내 생애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마저도

불태워 버려라
삼각형의 내각과 세 변을
인공 두뇌와 원주율을
파미르 고원의 악어 떼들을
눈에서 기어 나오는 전화번호부와
잔털이 박힌 손가락들을

불태워 버려라
공화국의 헌법을
공장의 로봇트들을
수족관의 비단잉어를

애인이 가져다 준 꽃다발을
이태리 양가죽 반코트와
끝반없는 항아리들을

불태워 버려라
기미 독립선언문을
슈퍼마켓의 영수증들을
이미 死語가 된 낡은 파일을
아버지의 인감 도장과
턴테이블에 걸린 미궁을

불태워 버려라
성당의 십자가를
눈알이 빠진 갑오징어와
바람이 할퀴 시간들을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마이크들과
희망의 고무풍선들을

불태워 버려라
눈물을 머금은 태양이
육신의 하역을 마칠 때까지
행과 행 사이가
피살당할 때까지
뒤뚱뒤뚱 걷는 물오리처럼
불태워 버려라
전파처럼 불태워 버려라

부기 우기 Boogie Woogie

난 무관심하다 사랑이 없다
한 번도 네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
손을 내밀지 않는다

너의 새로운 헤어 스타일에 대하여
빨갭게 칠한 입술에 대하여
육교 위에 엮드려 있는 거지에게도
그 혼한 동전 한 닢 떨구지 않는다

난 TV도 안 본다 신문도 안 본다
코미디언 최양락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4인조 강도가 대낮에 활보하고 다녀도
그 모든 게 귀찮고 혐오스럽다

둘 지난 아이가 재롱을 피워대도
서울시 단속반이 리어카를 뒤엎어도
옆집 대학생이 분신자살을 해도 동네 근처에 원자로가 세워져도
결코 외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다

시청 앞 광장에 백만 인파가 모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아마도 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꼭 한번 안 하리라

병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詩는
쓴다 웃기지 않냐?

야간 열차

시속 120 km로 달리는 열차 속에서
나는 너를 때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나를 가두고 나를 고문하고
끝내 나를 숨지게 한 너를
나는 조금도 손대지 않는다
내가 만약 너를 다치거나 훔하면
너의 젖먹이 어린아이가 자라
황사에 간 아비의 死因을 알아내곤
수천리 눈 쌓인 길을 밤새워
칼을 품고 내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때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목조르느냐?

1990 제4호

弘益文學



홍익문인회

홍익문인회는 홍익대학교 출신 문인들의 모임으로 1985년 창립되었습니다

권동수(시) / 김상민(희곡) / 김영숙(시) / 김영태(시 · 무용평론)
 김윤식(시) / 김정숙(수필 · 조각) / 김종근(시 · 미술평론)
 김중호(시) / 김지향(시) / 김창겸(시) / 김학면(시)
 류제하(시 · 시조) / 마광수(시) / 문덕수(시 · 평론)
 문상명(시) / 박남훈(시) / 박명용(시)
 박서보(수필 · 서양화) / 박해선(시) / 서종택(소설)
 성덕용(시) / 손해일(시) / 신용임(연극평론)
 신재창(시) / 안환균(시) / 오경운(시 · 평론)
 오택근(평론 · 시) / 유운규(시조) / 윤삼하(시)
 윤종혁(시) / 이덕성(시) / 이상대(소설)
 이석인(시) / 이승복(시) / 이은미(시)
 이일(시 · 미술평론) / 이제하(시 · 소설) / 이항녕(시조 · 수필)
 장사선(평론) / 정상구(시) / 정연덕(시)
 정혜승(시) / 조미나(시) / 조원묵(시)
 조용현(시) / 최강현(수필 · 고전문학) / 황송문(시 · 소설)

시와 반시

The Poetry and Anti-poetry

봄 · 99 · 27

기획

근대성과 문학

윤평중 · 권희영 · 이승훈
구모룡 · 최낙원

- 우리 시대의 시인/나희덕
- 시와 반시가 찾은 신인/
류길수 · 조병완

● 시
신대철 김성춘 구석본 원구식
김완하 김창겸 윤의섭 함기석
김소연 박찬일 서 립 김호진
박주영 박태건 홍승우

● 해의시/김철수
에이즈 문화운동의 본질과 한계

● 연재 : 문화초점/반경환
어느 철학자의 단상 · 2

● 연재 : 시인평전/박덕규
윤동주의 시와 삶

행발행 외 1편

—符籍에 부처

김창겸

돌 구름 행렬의 각반
 차고는 끌르고
더디게 가도 그만일 상 조금 참다 다시 차
 날려 보내고 혈—
 벗고 시계도 마음도
눈꽃 속 아지랑이 살 벗고 또
안개 긴 겨우나무처럼 고개 떨구듯 훌훌
 벗겨지고 눈 비비며
 지우고
 지우자 마자
검정물 눈 가로 하늘 가로 후우 — 후우
때가 낭자하고 다시 날려
붙어 날려 붙여 붙여 흘려 보내고

숲

불숲 속에서
주형—
된 델타의 폐허에서
실측된 지형을 확인키 위해서
내 호흡의 눈 귀 잃은
영속 찰나적 구원을 위해서
크로키하듯 파상적으로
정맥에서 갓 길어올린
검은 호랑이 눈썹 꼬리
피우다 만 담배 연기와
그가 쓰던 왕희지체와
그가 걸치던 카키색 작업복과……